



구명조끼가 의자 밑에 천으로 꽂공 묶여져 위급상황시 사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 꼭 묶인 구명조끼 위급시 사용불가... 유람선 아닌 '불안선'

르포-여수 오동도서 유람선 타보니

탑승객 숫자·신원 확인 않고 구조장비 사용법 안내 없어 허가 내준 해경은 감독 부실

모터보트 씽씽... 충돌 위험도 바다 위 1시간 '조마조마'

달리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세월호 침몰 참사와 흉도 해역의 유람선 좌초 사고 이후에도 여수 오동도와 돌산대교를 순회하는 유람선의 아찔한 관광은 여전했다. 50명 가까운 승객을 태운 60급 배가 구명조끼도 사용할 수 없는 채로 출항하는데도, 단속하는 해경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유람선 출항 여부조차 모르는 해경에게 출항 전 안전 점검, 승선 인원 파악, 구명조끼 등 안전 점검을 기대하기란 애초 무리였다. 해경이 유람선 안전에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면서 애꿎은 관광객들만 영세성을 핑계로 한 유람선 업주들의 목숨을 담보로한 운항에 내몰리고 있었다. 해경을 믿고 바다로 나가는 배를 타기엔 위험을 무릅써야 했다.

50m 떨어진 곳에서 운항하는 다른 유람선 출발장도 마찬가지였다. 승선 인원을 확인하고 구명 조끼가 제대로 비치됐는지 확인하는 해경은 어디에도 없었다. 배가 출항한 지 5분이 지나면서 어린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 및 70대 노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한 안내 방송이 나왔다. 기대했던 구명 조끼 비치 장소, 착용 방법,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들을 수 없었다. 선장은 대신, 운항하는 도중에 마이크를 잡고 "여수의 자랑 오동도"를 소개하는 관광용 방송을 했다.

동백호가 1시간 가량 오동도와 돌산대교 일대를 도는 동안 구명조끼 찾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선내 벽면에 '구명조끼가 승객 의자 밑에 있다'는 글이 붙어 있을 뿐이었다. 녹색 천으로 단단히 묶여 숨겨져 있는 탓에 구명조끼를 꺼내는 것조차 힘들었다. 긴급 상황에서 구명조끼를 꺼내 입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다.

승선 정원인 94명이지만 이들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원은 60대 선장 1명과 선원(77) 1명이 전부였다. 유람선의 운항과 안전 기준 등을 규정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정원이 50명을 초과하면 인명 구조 요원을 2명 이상 둔다'는 규정만 가깝스로 맞췄을 뿐이다.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 외

에 나머지 선원도 무언가를 계속 수리할 뿐 승객의 안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모터 보트 수십척도 동백호 바로 옆을 충돌할 듯 스치듯 지나가는, 위험 천만한 운항을 하고 있었다.

◇'안전' 눈감고 귀막은 해경=5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목포·여수해경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인허가 및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유람선은 목포 12척, 여수 24척 등 모두 36척.

하지만 해경 등 관계 당국의 점검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수해경은 동백호 운항 면허를 허가해줬을 뿐 출항 시각조차 모른다. 현장에 나오지 않으니 구명조끼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출항하는데도, '괜찮겠지'하며 운항을 허가하는 상황이다. '승객이 모이면 상시 출항해 정확히 시간을 모른다'며 몇 명의 승객을 태웠는지, 승선 명부를 작성했는지 점검도 포기하다시피 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해경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앞서 흉도바강사고 좌초 사고 때도 해경은 유람선 업체측이 관리 편의를 위해 구명조끼를 비닐에 넣어둔 채 보관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몇 분 만의 육안 점검으로 10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운 채 출항하도록 하는가 하면, 연간 7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리는데도 순찰정 하나 없이 유람선 안전을 책임지는 안일한 행태를 보인 바 있다.

한편, 여수의 해당 선사 측은 "승선명부를 원래는 작성하고 출항하는데 손님이 몰리고 어수선한 탓에 미처 승객 파악 절차 등을 챙기지 못했다. 안내방송도 이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형호·박기용기자 khh@/여수=김형호기자 chkim@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된 지난 3일 오후 여수시 오동도의 한 유선장(선착장)에서 승객들이 해상 유람을 마치고 유람선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유람선 반대편에는 최대 10명까지 태울 수 있는 모터보트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여수=박기용기자 pboxer@

## 선령 제한·안전 규정 미흡... 영세업체 '안전' 보다 '비용' 집착 운항

### 불안한 유람선 운항 계속 왜

끊이질 않는 해난사고에도 낡고 불안한 유람선은 왜 규정을 무시한 채 운항을 이어가고 있을까.

업계 안팎에선 여객선과 마찬가지로 해경과 해수부의 유람선 안전에 대한 무신경함과 무책임함에서 비롯됐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영세한 업체들의 경우 상당수가 '생방'보다 '비용'에만 집착, 안전이 뒷전이로 밀릴 수밖에 없는 데도, '별 수없지',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대중 대응하는 당국의 안일함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5일 전남도와 목포·여수해경 등에 따르면 전남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운항중인 전체 유람선 41척 가운데 흉도지역을 제외한

고는 운항시간표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출항 여부를 몇 분 전 탑승객 여부를 파악한 뒤 결정하다보니 해경이 운항 시각에 맞춰 현장에서 점검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

업체들 입장도 비슷하다. '그냥 놀리느니 승객 모일 때마다 운영하자'는 마인드가 팽배하다보니 시설 개선은 커녕, 흑시 모를 안전에 대비한 투자를 기대할 수조차 없는 노릇이다. 여수 지역 유람선 2척은 영업부진 등으로 현재 휴업중이고 고흥지역 나라도 등 상당수 유람선도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다. 이 때문에 수익성만 따지는 업체들에게 '안전 경영 마인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말도 나온다.

해경의 관광객도 많지 않은데 매일 점검

하고 미흡한 안전 장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에 부실한 유람선 안전 관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의 보여주기식 대처도 한몫을 했다. 세월호 참사 뒤로 여객선에만 집중됐을 뿐 '유람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해수부도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에 탑승, 안전 점검을 벌이면서도 유람선은 속 빼놓는가 하면, 관련법 대책도 제외했었다.

이 때문에 유람선의 경우 선령(船齡)을 제한하거나 해경에게 유람선 출항 전 안전 점검을 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법규도 마련돼 있지 않다. 김형호·박기용기자 khh@/여수=김형호기자 chkim@

### 시판 치약 3분의 2 유해 논란 성분 함유

국내에서 허가 받은 치약의 3분의 2에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따르면 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2050개의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였다.

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의 일종이며 트리클로산은 항균효과가 있는 화학물질로, 이들이 암 발생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미네소타주는 지난 5월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미국 제약제조회사인 쉐링-플라우어는 2011년부터 트리클로산의 사용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 중 일부 제품은 허용 기준치인 0.2%를 초과하는 파라벤을 함유했고, 일부 제품은 0.3% 가량의 트리클로산을 포함했다. 트리클로산의 경우 화장품과 세정제에는 최대 허용치가 0.3%로 규정돼 있으나 치약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연합스

### 때리고 부수고... 휴가 나온 군인들 잇단 물의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 만취상태에서 여고생을 폭행하는 등 군기 빠진 군인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지고 있다. 광주남부경찰청은 5일 만취상태에서 영업용 택시의 유리창문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육군 모 부대 소속 박모(21) 상병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상병은 이날 새벽 5시 4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M중학교 앞길에서 이모(45)씨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뒷좌석 유리창문을 자신의 주먹으로 때려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광주동부경찰은 혼술을 거부

한 여고생을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로 육군 모 부대 소속 김모(22) 병장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병장은 지난 4일 새벽 3시 광주시 동구 금동 M호텔 인근 앞길에서 최모(18)양의 얼굴 등을 5회에 걸쳐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병장은 이날 유연히 마주친 최양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최양이 갑자기 귀가한다고 하자 인근 모텔로 끌고 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식당 소란 50대, 출동 경찰에 "순찰차로 해남 데려달라" 난동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순찰차로 자신의 집까지 바래다 달라며 떼를 쓴 50대 취객이 경찰서행. ○5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최모(56)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 35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E아파트 인근 택시승강장에서 동부경찰 금남지구대 소속 유모(34) 경장의 무릎을 발로 찬 뒤 순찰

차를 막아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최씨는 이날 동구 대인동 K식당에서 "집에 갈 차비 2만 원만 빌려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유경장에게 "순찰차로 해남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황설통수.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부동산 경매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배우면서 투자 가능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등 집기 제공  
사용료 연 1200만원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

### 경매 투자자 모심

- 1억 ~ 10억원
- 담보 제공 가능
- 경매에 관심 있는 분!

## 월산동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건물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35평, 주택  
4층-35평, 주택
- 일반/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임  
→ 대지 전체, 건물 1/3 지분 낙찰  
→ 건물 1/3 지분 일반 매입  
→ 건물 1/3 지분 낙찰
- 시세 및 감정가 -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대출 4억 가, 보 2억에 월 300만원 포함
- 엘리베이터, 전체 올 수리
- 공인 중개사 공동 중개 환영
- 주인 직매 HP. 010-3605-5000





■ 29평 - 12층  
주거겸 사무실  
양동 하천 방향, 원룸형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시 세 - 1억원 정도  
매매가 - 7200만원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

---

### 오피스텔 매매

수기등 제일 오피스텔

■ 77평 - 20층  
사무실 전용  
창가 코너, 최상층, 전망좋은  
사무실 용도로 전체 올수리  
룸 2개 사무실 1개  
시 세 - 3억5000만원  
매매가 - 2억5500만원

---

주인직매, 010-3605-5000